

지는 시기로 계절을 알았으며, 작물을 거둬들인 횟수로 연도를 알았네. 이처럼 나긋한 인상들은 두 아이의 대화 속에서 그 묘미가 가장 크게 살아났어. 비르지니는 가족들에게 “식사하실 시간이에요, 바나나나무 그림자가 나무 발치에 와 있거든요”라고 말하거나, “밤이 가까워오고 있어요, 타마린드가 잎을 닫고 있거든요”라고 말했고,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“우리 집에는 언제쯤 놀러올 거야?”라고 물으면, “사탕수수를 거둘 때쯤”이라 대답했고, 그러면 그 어린 소녀들은 “그럼 언니가 올 때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재밌겠다”며 말을 이었지. 비르지니에게 나이가 몇 살인지, 또 풀은 몇 살인지 물으면, 그 아이는 “우리 오빠는 샘가에 있는 커다란 코코넛 나무 살이고, 나는 작은 코코넛 나무 살이에요. 제가 태어난 뒤로 망고나무에는 열매가 열두 번 맺혔고, 오렌지나무는 꽃을 스물네 번 피웠답니다”라고 말했네. 두 아이의 생명은 목신이나 드리아데스●처럼 나무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는 듯했지. 풀과 비르지니는 어머니들의 생애 외에 다른 역사의 시대를 알지 못했고, 과수원의 연대가 아닌 다른 연대를 알지 못했으며, 철학이라면 누구에게나 신을 행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했다네.

이런 마당에 이 어린 것들이 우리 방식대로 부자가 되고 똑똑해질 필요가 있었겠나? 두 사람의 욕구와 무지는 이들

---

● 은화의 일종. 특히 식민지에서 각기 다른 값어치의 화폐들을 총칭하는 용어.